

## A Challenge about Individualism 개인주의에 대한 도전 (고전 11:2-16)

### God's Order Under Attack

Today is Mother's Day...but what will become of it in the next few years? There's a growing likelihood that the culture will cancel it, by replacing it with another name that's more 'gender inclusive'. Two years ago a principal of a Melbourne primary school banned the name of the traditional, 'Mother's Day' fundraising stall & changed it to 'Appreciation Stall.'

The principal apologised for past hurt & went on to say 'we no longer subscribe to a binary world.'

It seems that Canada is even further ahead ... four years ago for the same reasons, a school banned craft activities to help children celebrate both Mother's & Father's Days.

The letter sent home to parents claimed it was in 'an effort to celebrate diversity & inclusivity.'

In 2019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added the once exclusive third-person plural pronoun, 'they' to include individuals of 'an unspecified gender.' 11 years ago Canadian based psychologist, Jordan Peterson rose to prominence in speaking out over that very issue when the Canadian government was trying to compel or force people to use pronouns other than 'he'.... 'she' ... 'him' or 'her' in favour of new, non-gender specific language.

What brought us to this? The male-dominated chauvinism into the 1950s followed by the sexual revolution of the 60's & 70's & the feminist movement rising through it all. The world has been proclaiming liberation by being who you want to be...that necessarily involves rejecting who God has made everyone to be. It is the challenge of extreme individualism.

### 공격받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그러나 이 어머니의 날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을 취소하고,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날로 바꾸자는 게 오늘날 문화의 추세입니다. 2년 전 멜번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어머니의 날” 행사를 취소하고, “감사하는 날”로 바꿨습니다. 이 교장은, 주장하기를, 한 사람의 성은, 남/여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에, 지난날, “어머니의 날” 같은 날을 기념함으로 이진법적 성 인식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캐나다는 더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4년 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 있는 학교는, 어머니, 아버지의 날 행사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지에 관해 설명하기를, 이는 “성 정체성의 다양성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이진법적 성 인식의 행사를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서는 한때 배타적인 3인칭 복수 대명사인 “they/그들”에 불특정 성별”의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11년 전 캐나다 정부는, 성별은 나타내는 “he/그” ... “she/그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대신, 이런 성별을 구체화하지 않는 다른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1950년대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60~70년대에 일어난 성 혁명과 페미니스트 운동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유를 정의하고 선언했습니다...이런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며, 극단적 개인주의의 형태입니다.

In 54 AD Corinth was facing the same kind of challenge with a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 2000 years ago, Roman society saw the cultural norm that gave licence to a husband's infidelity while promoting his absolute power over the household. In protest, a movement came about that

gave rise to the 'new woman.' Australian scholar, Bruce Winter wrote a book called, *Roman Wives, Roman Widows* that showed these new wives & widows were typically wealthy & individualistic in their so-called 'pursuit of pleasure.' They were so prominent by 17 BC that the Emperor Augustus legislated to try & curb their immorality.....

The laws included dress codes for wives & prostitutes, power in some cases for a husband to murder his wife...& the requirement of a husband to divorce his wife for adultery with penalties if he ignored her infidelity.

Into that context, God's word spoke....into our similar context, God's word speaks.

### The Principle of the Passage (2-3)

V2, 'Now I commend you because you remember me in everything and maintain the traditions even as I delivered them to you.'

The apostle starts this section by commending the Corinthians. The word conveys a sense of praise. We learn that the praise is for two reasons — for remembering Paul in everything & in some way maintaining the traditions — that is, the teachings that he had delivered to them.

That's grace! In many ways, we could say that the Corinthian church was the most morally messed up & challenged church in the NT...but what does Paul say? I praise you for remember me & maintaining or holding fast to his teaching & so it's with a sense of +ve expectation that they will remember his instruction & adhere to it...

54 AD 년 고린도 또한 이런 비슷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같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2000 년 전 로마 사회는, 남편이 가정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하면,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항으로, “새로운 여성”이라는 운동이 생겼었는데, 호주 학자인 브루스 윈터는 그의 책인 “로마의 아내들, 로마의 과부들”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 새 아내들과 과부들은 “괘락을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풍요로운 자들이었다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기원전 17년까지 매우 두드러져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들의 부도덕성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아내들과 매춘부들이 입을 수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수 있는 권력과 아내가 간통을 범하면 남편을 이혼시키며, 아내의 간통을 목살하는 남편을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이런 비슷한 배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 구절의 원리 (2~3 절)

2 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본문을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함과 함께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칭찬합니다...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했기 때문이며, 그가 전한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입니다. 여기서 전통이란, 이들에게 전한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난잡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바울은 자신을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에 매달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V3,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the head of every man is Christ, the head of a wife is her husband, and the head of Christ is God.'

Here, Paul states the principle of the passage. It's the principle of 'headship.' It's a metaphor to convey authority & honour.

We think about the 'head' of a company....for the employees to relate to the head with honour, there are things they would do — in a way that honours the one in authority.

There are things they wouldn't do — if they were to act like the head, they would shame the head & themselves.

Here's what Paul wants us to understand.... 'the head of every man is Christ.' Though our Lord in this case is of infinite worth & importance....the point is that Christ is the one in authority over every man.

Next in the pattern Paul says is that 'the head of a wife is her husband, and the head of Christ is God.' What Paul says here doesn't cancel the fact that the head of a wife is Christ...that Christ is in authority over her....

In Galatians 3:28, Paul says, 'There is no Jew or Greek, slave or free, male 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But for the sake of what was happening in Corinth....it was vital for Paul to reinforce God's order. In that order, he wants us also to know that we must not understand headship to mean importance or value.

3 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바울은 이 구절에 원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머리”에 대한 원리이며, 머리는 권위와 공경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한 회사의 “머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 회사의 직원들은 그 공경함 가운데 머리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특정한 행동이 있습니다...만약 직원들이 머리 같이 행한다면, 이는 머리 된 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사실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비록 우리 주님은 무한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셨지만...여기에서 요점은, 그리스도께서는 각 남자 위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말씀하는 패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사실은, 아내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며, 아내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절에서 바울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바울은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머리가 더 중요하거나 더 가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말아야 함에 있습니다.

That's why he says that the 'head of Christ is God.' In other words, even God the Son honoured God the Father by His submission. We know the Father & the Son & the Spirit as Trinity — One God — three Persons.

Headship has everything to do with honour in relationships. Husbands are to lead their wives...wives honour their husbands through submission. Just as our Lord Jesus Christ submitted to the Father yet was not in any way less than God as the Son.

Spiritual headship in marriage & the church was the principle...& that principle was being assaulted.

#### The Practices Assaulting the Principle (4-7)

v4, 'Every man who prays or prophesies with his head covered dishonours his head,' Paul writes about the practice of head covering while praying or prophesying. To prophesy is an action that has a range of meanings...though it helps here to note that Paul sets it alongside prayer.... Prayer is communication to God...prophesy is communication about God...often understood as a particular application of the word of God.

Men were doing these two things in the corporate setting of church & when they covered their heads, they were dishonouring Christ. It becomes more understandable why Paul said this when we think about the pagan practices of the day... For a man to cover one's head with a veil when praying or prophesying was to mimic the idolatry of the pagans when they sacrificed to idols. It was to dishonour Christ — the man's 'head.'

V5, 'but every wife who prays or prophesies with her head uncovered dishonours her head,'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인즉,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공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머리 됨은, 관계 가운데 공경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를 인도하며, 아내들은 순종함으로 공경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그러나 아들이 순종하였다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며, 더 열등 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원리가 결혼과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머리됨의 의미일 때, 이런 원리는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 원리를 공격하는 잘못된 관습들. (4~7 절)

4 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바울은 기도나 예언하는 동안 머리에 무엇을 쓰는 관습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예언함이란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바울이 예언함을 기도와 함께 말씀함은,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며, 예언은 하나님에 대해 소통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이 두 가지를 공 예배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가림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관습에 대해 왜 질책하는지를, 당시 이교도들의 관습을 살펴보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머리에 무엇을 두르고 기도하거나 예언함은, 우상 숭배가운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 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5 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The wives of the men in that culture wore marriage veils....so, for a wife to remove the veil from her literal head, was to dishonour her spiritual head — her husband. Just as the man was dishonouring Christ by implying that he was following another leader....so also the wife was dishonouring her husband by inferring that she was independent of her husband as she engaged in public worship.

Paul takes the wife's practice to the logical conclusion.... 'it is the same as if her head were shaven. For if a wife will not cover her head, then she should cut her hair short. But since it is disgraceful for a wife to cut off her hair or shave her head, let her cover her head.'  
Bruce Winter also helpfully noted that in the culture, for a woman to have her head shaved was a public sign of her adultery...it was the shameful extreme that began with the wife uncovering her marriage veil from her head. Pagan practice for men in covering...Unfaithful practice for wives to uncover

V7, 'For a man ought not to cover his head, since he is the image and glory of God, but woman is the glory of man'

The verse literally says, 'the woman' is the glory of man. In other words, Paul is referring back to the woman as the wife of her husband. The man is the image & glory of God....his wife is her husband's glory. It all comes back to headship being about honour.

Our cultural context while in many ways similar is also very different. The passage isn't commanding women to wear hats in church as some have understood it.  
To think about the application, we need to come back to the basic questions, 'how might I as a man, in practice be honouring or dishonouring to Christ?' Wives, 'how might you as a woman, in your practice be honouring or dishonouring your husband?'

당시 문화 가운데 결혼한 여인은, 결혼 베일을 쓰고 다녔습니다...그래서 한 결혼한 여성이 그 베일을 벗음은, 자신의 영적 머리인 남편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다른 지도자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에게 무례를 행하듯, 아내 또한 공 예배 가운데 베일을 벗음으로 남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암시를 나타냄은, 그의 남편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의 이런 행동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5~6 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부르스 윈터는 당시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를, 머리를 깎음은, 간음을 행한 표시였다 설명합니다. (정리하자면) 남성이 머리 위에 무엇을 두름은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관습을 따라 하는 행위였으며...여성이 머리 위에 무엇을 두르지 않음은 신실하지 못한 여인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7 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말씀함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여성을 한 남편의 아내로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며...그의 아내는 남편의 영광입니다. 이는 다시 머리 됨의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적 배경에서, 비슷한 점도 많지만, 또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용 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금 기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로서, 실질적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거나 영화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혹은 “어떻게 내가 아내로서, 실질적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거나 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

For men, we need to pray for responsibility to lead — the first signs of the fall for Adam was when he failed to protect his wife. We men love to work & leave the leadership of our families to our wives....to be the ones who set the direction....shame on us. In that we not only dishonour Christ, we dishonour our wives & like Adam, set them up for a fall.

We men also have a tendency to step back from taking the lead in spiritual & church leadership. We must repent...we must seek the Lord's grace to take responsibility.

Wives, your temptation is to dishonour your husband by ruling over him ... that's the curse of the Fall. The temptation for women from the time of Eve is to rebel against male headship....to try & get things done that dishonours the man that God has placed in a position of authority over you.

The challenge for you wives is to keep honouring & submitting to your husband — even & especially when we as husbands fail. The challenge for all of you, dear sisters...is to honour those men in your life & in the church whom God has appointed to lead you.

In the final part of the passage, Paul gives proof from Creation of the principle of headship...

#### The Proof Underlying the Principle (8-16)

V8, 'For man was not made from woman, but woman from man. Neither was man created for woman, but woman for man.'

남성분들은 잘 인도할 수 있는 책임감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 처음으로 나타낸 죄의 표시는 그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족을 이끄는 일을 아내에게 미움을 보게 됩니다...이는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우리의 아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며, 아담과 같이 우리의 아내를 넘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남성분들은,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함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회개해야 함 합니다...우리는 책임감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인들에게 있는 유혹은, 남편을 통치하려 함으로 공경치 않음에 있습니다...이는 타락 이후의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락이후 하와의 때부터 있는 유혹은, 남성의 머리 됴에 반항하는 것이며...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놓으신 남편을 공경하지 않음으로 일을 해결하려 함에 있습니다.

부인들에게 있어서 힘든 도전 가운데 하나는, 남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며,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자매님들에게 놓인 도전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남성 지도자들을 존중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머리 됴의 원리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 원리의 기초적인 증거 (8-16 절)

8~9 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Again, in our context it's tempting to recoil in embarrassment with the wrong & superficial thought that Paul is saying that women are second class citizens. He's merely stating the order by which God brought the creation of our humanity into being. God made the woman, Eve out of Adam's side. God made her to be Adam's helper. Lest anyone think that a wife's role as helper to her husband is belittling.....

In Psalm 10:14, the Lord is the 'Helper of the fatherless'

In Exodus 18, Moses called one of his sons, "Eli-ezer" — 'God is my helper.' It's the same word in the Genesis 2 narrative when it says that 'there was not a *helper* fit for him.'

It's what Paul means when he says woman was created for man. He also ties the proof back into the principle of headship in v10, 'That is why a wife ought to have a symbol of authority on her head, because of the angels.'

The symbol of authority was the marriage veil...Paul has just argued that the proof of the principle is in creation....here he adds another reason, 'because of the angels.'

While many Biblical references are to supernatural angels....the meaning that makes best sense of the context is the basic understanding of angel as 'messenger.' When wives prayed or prophesied in church without their marriage veils, it was going against the imperial order of the Emperor. These messengers observing what went on in a church meeting became the messengers to the authorities as they leaked messages.

이 구절을 오늘날의 배경에서 이해하려 할 때, 바울이 그저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창조 질서의 순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인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아내의 역할이 경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14 에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돕는 분이이라 해서 더 열등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출애굽기 18 장에서 모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할 때 이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18 절에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런 증거를 10 절 머리 됴의 원리와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돌지니라”

이 권위의 상징은 결혼 베일이었습니다...바울은 방금 이 원리의 증거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다고 주장 하였고...그리고 여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성경의 많은 구절이 초자연적인 천사를 언급하고 있을 때...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우리는 천사를 “메신저”로 이해 함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아내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 베일 없이 기도 하거나 예언한다 하면, 이는 황제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이 메신저들은 메시지를 세어나가게 함으로 정부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Here is a particular instance where the imperial order supported God's order. To defy God's honour was to defy Caesar.

+ now, to ensure that no man or woman is left thinking that Paul is himself guilty of being a chauvinist, v11, 'Nevertheless, in the Lord woman is not independent of man nor man of woman; for as woman was made from man, so man is now born of woman. And all things are from God.'

Though the order of the original creation provides proof of the principle of headship...the ongoing pattern of creation provides proof that being the head does not make any husband or man superior in worth.

In the final proof underlying the principle of headship, Paul appeals to what is prop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ings, v14, 'Does not nature itself teach you that if a man wears long hair it is a disgrace for him, but if a woman has long hair, it is her glory? For her hair is given to her for a covering.'

It's what is proper given the nature of the matter in the context. We think of the Nazirites — in a different context — one of whom was Samson whose long hair was his glory.

In ancient Corinth, long hair on men was to detract from their masculinity...long hair for women reinforced their femininity. Bruce Winter — surviving statues from Corinth showed men as captives with long hair to show them as weak & unmanly.\*

The main reason that Paul raises long hair v short hair is to reinforce the principle of headship being attacked in Corinth.

여기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지한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맹목적 애국주의자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12 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비록 원래의 창조 질서가 머리 됨의 원리에 대해 증명할지라도...지속해서 나타나는 창조의 패턴은 남자나 남편이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런 머리 됨의 원리의 마지막 증거 가운데, 바울은 자연적인 논리 앞에 올바른 것으로 호소합니다...14~15 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문맥상에서 문제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배경 가운데 있는 나지르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들 중 한 명은 삼손으로, 그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고대 고린도에서는 남성의 긴 머리는 남성성을 하락시키는 것이었고,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윈터는 말하길, 고린도에서 살아남은 조각상들을 보면, 포로로 잡혀 온 남성들의 경우 그들의 연약함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길게 표현했다 합니다.

바울이, 긴 머리 vs 짧은 머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공격받고 있던 머리 됨에 원리를 재강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Men were in danger of dishonouring Christ by following pagan practice...Wives were in danger of dishonouring their husbands by following the new women...The were both in danger of dishonouring the Lord by rejecting His order

### Resist Individualism by Christlike Submission

What God shows us is that there is no room for ungodly individualism of the self-ruling, autonomous kind. There are constant threats to God's order for men & women in marriage & the church.

One thing is sure — God has made us to complement each other.... in marriage as husbands & wives pursue Christlike honour of one another....In church where we as brothers & sisters honour & empower each other in Christ

By Christlike submission to one another with our God-given sexes & contexts. In that we flourish & glorify God by following Christ,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남성들의 경우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못할 위험 가운데 있었고...아내들의 경우 새 여성상의 운동을 따름으로 그녀들의 남편을 공경하지 못할 위험에 있었습니다...결국 남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주님을 공경하지 못할 위험에 있었던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으로 개인주의를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은, 불경건한 개인주의적, 자기 지배와 같은 것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혼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위협은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움을 쫓읍시다...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힘을 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과 배경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을 나타내십시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번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